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19-26]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9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2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2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 쥘대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24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26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설교제목의 첫 시작은 "내게 사는 것이"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은 "내게 죽는 것도"로 마칩니다. 우리는 인생 전체를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 문장이 완전하고 온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삶에서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모두 의미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면 삶엔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 역시 무의미합니다. 이것은 운명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담대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주어집니다. 이생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이 이생을 떠나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은 어려운 선택이 아닌 동일하게 영광스런 기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바울은 고린도후서 5:14-15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바울에게 삶이란 주를 위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이었습니다. 설교하고, 증거하고, 영광스런 구원자에게 사람들을 이끄는 삶. 우리의 지속되는 삶에서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결과를 맺을까요? 바울에게 이것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까? 죽는 것도 유익한 것. 우리가 이생을 떠날 때 우리가 처한 모든 불확실한 것들과 위험한 것들은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없이 행복하고 영광이 넘치는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던 구원자와 함께 완전한 교재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있는 것보다 그 분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분을 영원토록 찬양 할 수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이 그 분을 위해 고통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그 분을 위해 감옥에 갇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담대함, 이런 소망 그리고 이런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에 관한 이런 삶의 태도와 굳건한 마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어지는 삶의 선택이나 우리의 헌신으로 얻어진 열매들이나(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아니면 이 삶을 마치고 떠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사느냐(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의 어려움에 진정한 깊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원기 왕성한 몸과 마음으로 믿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 온 열정을 다 쏟아 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소유한 사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한 사람. 여러분은 이런 사람에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연약한 교회가 이런 사람을 잃으면 어떤 어려움에 처할 것인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24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빌립보서 1:24). 강력한 깨우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아오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동일한 삶의 우선순위를 받아들일지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교회의 필요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미련 없이 미뤄두고 섬기시겠습니까? 그(바울)은 우리를 볼 때 부족한 면들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지금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지속하기 위해 역시 이 땅에 머물길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이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생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삽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교회가 자라도록 돕기 위해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신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올 것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위해 천국으로 갈 것인가 그리스도를 위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남을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할까요? *"6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6). 삶을 사는 확고한 방식(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